

강진군 지방소멸 해법 건의에 이상민 장관 “긍정 검토”

‘푸소’ 농가·‘4도 3촌 병영스테이’·‘청년마을 공유 주거’ 등 둘러봐 강진원 군수 각종 정책 제안...이 장관 “생활인구 교부세 반영 할 것”

‘지역소멸 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제안해 주목을 끈다. 강진군은 지난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진을 찾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고 19일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날 이 장관에게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제안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과 농가 체험 ‘푸소’ 등으로 귀농·귀촌인을 불러모으고 있으며, ‘반값 여행’, ‘블로그카페’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푸소’ 농가인 병영면 솔나무안집과 새로 단장한 빈집에 정착한 이상준·전진주씨 부부 등을 찾았다.

‘푸소’ 체험은 강진 생활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이나 통학 등을 위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말한다.

연간 강진 관광객은 500만명으로, 하루 평균 강진 생활인구는 1만4000명 선으로 집계된다.

강진군은 기존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를 더한 인구에 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강 군수는 “강진군은 예년 70%대였던 1차 산업 종사자가 최근 들어 42%에 그치고, 3차 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47%에 육박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와 관광객 유입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이 장관에게 설명했다.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강진군은 4일은 도시, 3일은 강진에서 지내는 ‘4도 3촌 병영스테이’도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4도 3촌 병영스테이’ 1호점 청년 입주자를 만나고, 병영면에 머무는 유튜버 김현우씨를 찾았다. 김씨는 ‘오지는 오진다’라는 영상물을 연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인 ‘성하객잔’ 준공식에 참석해 강진에 정착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강 군수는 제조업이 빈약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지난 16일 강진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해 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그는 “강진의 경우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무려 600억원 가까이 줄어 군 살림에 감당 못 할 큰 어려움이 있다”며 “군 단위 지자체는 흔히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부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국고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 장관은 “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정부의 교부세 배분 때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는 축제 성공 여부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잘 만들어진 축제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생활인구 증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오히려 가점을 주도해 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인구도 개념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해 그 단계를 되면 당연히 교부세 인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 밖에도 외식 전문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추진하는 ‘강진군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 등도 소개했다.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강진군 입장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드론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 잡는다

‘드론 감시 시스템’ 도입...무허가 건축·형질변경 등 신속 대응



드론으로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나주시가 올해 처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에 드론을 투입한다.

나주시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시와 인접한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일대 39.4km²가 지정됐다. 감시 대상은 불법 절·성토, 개간,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현장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과 수시 드론 촬영을 병행해 상호 보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감시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점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 17일 열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소양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흥군 노인 사업 수행기관 안전보건 교육

15개 기관 2985명 대상

장흥군이 노인 업무 수행기관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안전보건 교육을 벌인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안전·소양 교육은 지난 8일 장흥지역자활센터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1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무료급식 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 2985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강사를 파견해 에서 중대재해 사례와 안전사고 예방법 등

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된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사고 대처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장흥군은 노인 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종사자와 참여자 안전보건 교육 등도 진행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노인 일자리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보람과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채본부장 kykim@

화순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신청하세요”

25개 마을 다음 달 4일부터 교육

화순군이 영농철을 맞아 현장으로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신청받는다. 교육은 다음 달 4일부터 진행된다.

올해 교육은 총 25개 마을을 목표로 농기계 정비

기반이 취약한 오지마을과 최근 3년간 순회수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해 찾아가는다.

순회수리 전문팀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과 해당 읍면 농업인상담소장으로 구성된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생활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에게 자가 정비 교육과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당면 영농현안 등 지역 맞춤형 영농상담도 병행한다. 교육 신청 방법은 마을 대표(이장 등)가 관할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자가 정비 기술 향상으로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전교육으로 농업인 안전을 지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